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두자산신탁(이스트스프링 차이나 드래곤 A Share 증권모투자신탁(미달러)[주식])은 중국 상해 또는 심천증권거래소에 상장된 A Share 주식 가운데 우수한 기업지배구조와 성장성을 지닌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의 기초통화인 미국 달러화를 활용하여 원/달러 환헤지 전략을 실시합니다.

- 중국 A Share 주식에의 투자는 이스트스프링인베스트먼트 홍콩 리미티드(Eastspring Investments (Hong Kong) Limited)에서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255억 원

-모투자신탁 2,103억 원

펀드유형 주식형, 모자형, 종류형
-모투자신탁 편입비 : 90% 이상
-모투자신탁 주식편입비 : 60% 이상
출처: AITAS 시스템

설정일

(운용펀드 : 2009년 10월 07일)

- 클래스 A : 2009년 10월 07일
- 클래스 A-E : 2014년 06월 11일
- 클래스 C : 2009년 10월 07일
- 클래스 C-E : 2009년 10월 07일
- 클래스 C-F : 2010년 07월 14일
- 클래스 C-G : 2017년 11월 07일
- 클래스 C-P(퇴직연금) : 2014년 12월 16일
- 클래스 C-P(퇴직연금)E : 2017년 08월 09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 : 2015년 02월 13일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2017년 11월 03일
- 클래스 C-W : 2014년 08월 13일
- 클래스 C2 : 2010년 10월 08일
- 클래스 C3 : 2011년 10월 10일
- 클래스 C4 : 2012년 10월 09일
- 클래스 C5 : 2013년 10월 08일
- 클래스 S : 2014년 04월 22일
- 클래스 S-P : 2016년 03월 24일

벤치마크 CSI300 (CNY, T-1, 90%) + Call 10%

신탁업자 국민은행

월 중 환헤지 비중 85.3%

선물 또는 선도 계약의 평가액(KRW) / 외화 자산의 평가액(KRW)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4영업일	5영업일
17시 경과후	5영업일	6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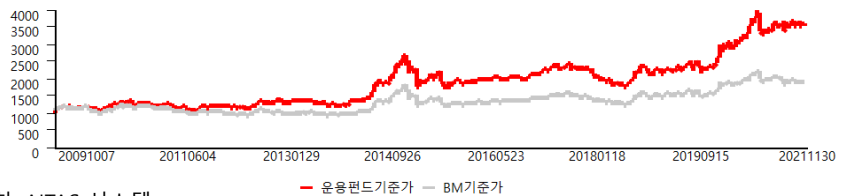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1.82%	1.50%	0.16%	13.36%	62.68%	98.64%	75.15%	259.64%
클래스 A	1.67%	1.04%	-0.76%	11.33%	56.97%	88.27%	59.98%	188.27%
클래스 A-E	1.71%	1.16%	-0.52%	11.84%	58.40%	90.87%	63.73%	166.37%
클래스 C	1.62%	0.90%	-1.05%	10.68%	55.18%	85.06%	55.41%	168.45%
클래스 C-E	1.66%	1.00%	-0.85%	11.13%	56.41%	87.27%	58.55%	180.94%
클래스 C-F	1.74%	1.27%	-0.31%	12.31%	59.71%	93.23%	67.17%	231.93%
클래스 C-G	1.67%	1.03%	-0.78%	11.27%	56.80%	87.98%	-	41.99%
클래스 C-P(퇴직연금)	1.68%	1.07%	-0.70%	11.46%	57.33%	88.92%	60.92%	84.10%
클래스 C-P(퇴직연금)E	1.71%	1.17%	-0.50%	11.90%	58.56%	91.14%	-	61.15%
클래스 C-P2(연금저축)	1.68%	1.08%	-0.68%	11.49%	57.43%	89.10%	61.16%	75.91%
클래스 C-P2(연금저축)E	1.71%	1.18%	-0.49%	11.91%	58.59%	91.19%	-	46.65%
클래스 C-W	1.74%	1.27%	-0.30%	12.34%	59.81%	93.41%	67.42%	151.83%
클래스 C2	1.63%	0.92%	-1.00%	10.80%	55.50%	85.65%	56.22%	125.36%
클래스 C3	1.64%	0.95%	-0.95%	10.91%	55.81%	86.20%	57.01%	156.58%
클래스 C4	1.65%	0.97%	-0.90%	11.02%	56.11%	86.74%	57.78%	159.18%
클래스 C5	1.66%	1.00%	-0.85%	11.13%	56.42%	87.29%	58.56%	136.06%
클래스 S	1.72%	1.19%	-0.47%	11.96%	58.72%	91.44%	64.55%	168.14%
클래스 S-P	1.73%	1.22%	-0.41%	12.09%	59.09%	92.10%	65.52%	77.28%
벤치마크	-0.22%	0.75%	-7.90%	-2.14%	24.38%	47.80%	37.91%	87.67%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자금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만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므로,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설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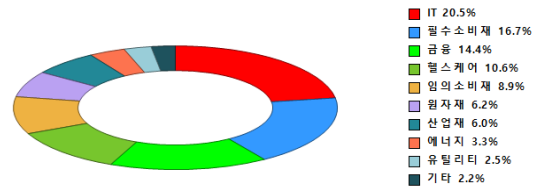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1년 11월말, 모두자산신탁 기준)

<전체>



<주식 업종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1년 11월말, 모두자산신탁 주식비중)

종목명	섹터	비중(%)
KWEICHOW MOUTAI COMPANY LIMITED	필수소비재	5.7
CHINA MERCHANTS BANK CO(NEW)	금융	4.1
TIANJIN ZHONGHUAN SEMICONDUCTOR	IT	3.4
WULIANGYE YIBIN CO LTD	필수소비재	3.3
CONTEMPORARY AMPEREX TECHN-A	에너지	3.3
MIDEA GROUP CO LTD-A	임의소비재	3.0
GF SECURITIES CO LTD-A	금융	2.8
WUXI APPTec CO LTD-A	헬스케어	2.6
BYD CO LTD -A	임의소비재	2.3
EAST MONEY INFORMATION CO-A	IT	2.3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장면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와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적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A : 총 연 1.8325% (판매 0.92%)
- 클래스 A-E : 총 연 1.3625% (판매 0.45%)
- 클래스 C : 총 연 2.4125% (판매 1.5%)
- 클래스 C-E : 총 연 2.0125% (판매 1.1%)
- 클래스 C-F : 총 연 0.9425% (판매 0.03%)
- 클래스 C-G : 총 연 1.8925% (판매 0.98%)
- 클래스 C-P(퇴직연금) : 총 연 1.7125% (판매 0.8%)
- 클래스 C-P(퇴직연금)E : 총 연 1.3125% (판매 0.4%)
- 클래스 C-P2(연금저축) : 총 연 1.6825% (판매 0.77%)
- 클래스 C-P2(연금저축)E : 총 연 1.3025% (판매 0.39%)
- 클래스 C-W : 총 연 0.9125% (판매 0%)
- 클래스 C2 : 총 연 2.3125% (판매 1.4%)
- 클래스 C3 : 총 연 2.2125% (판매 1.3%)
- 클래스 C4 : 총 연 2.1125% (판매 1.2%)
- 클래스 C5 : 총 연 2.0125% (판매 1.1%)
- 클래스 S : 총 연 1.2625% (판매 0.35%)
- 클래스 S-P : 총 연 1.1425% (판매 0.23%)

(공통사항)

운용 0.84%, 신탁 0.06%,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 클래스 A 납입금액의 1.0% 이내
- 클래스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클래스 C/C-E/C-P(퇴직연금)/C-P2(연금저축)/S: 없음

후취판매수수료

- 클래스 S : 환매금액의 0.15% 이내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1월 중국증시는 펀드의 벤치마크지수인 CSI300 Index(CNY)기준으로 전월 대비 0.87% 하락하였습니다. 산업별로는 방위산업, 통신서비스, 비철금속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으며, 레저서비스, 광업, 은행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11월 중국의 제조업 PMI는 50.1로 중국 내 전력 공급이 다시 안정을 찾으며 8개월 하락세 마감은 물론 3개월 만에 경기위축 국면에서 벗어났습니다. 1~10월 중국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계속 하락하였고 인프라 투자도 부진하였습니다. 10월 소비재 소매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여행 관련 소비 실적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2년 평균 성장률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업종의 성장률이 높아졌습니다. 펀드에서는 종목선택과 자산배분 모두 효율적으로 작용하며 비교적수 성과를 상회하였습니다. 특히 금융, 헬스케어, 소재 업종에서의 종목선택이 펀드 성과에 기여하였습니다. 반면 소비재 업종에서의 종목선택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경기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이를 완화시킬 정책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동산 경기 부양 대신경제 변혁에 초점을 맞추고 기술, 신에너지, 신소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A주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기 상승 추세는 변함없고 여전히 구조적인 기회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11월 말 기준 중국 A주의 밸류에이션은 평균 수준으로 내려왔고, 고평가에 따른 주가의 하방 리스크는 완화되었습니다. 여전히 헬스케어, 소비재, 기술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펀드에서는 양질의 선도 기업 발굴에 집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산업에 대하여 상향식 전략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